



여류 화가로 격동의 삶을 살다간 남전 허산옥의 삶을 다룬 영화 '어게인'.

전주의 정체성 담은 한국형 뮤지컬

전주 마지막 기생 · 여류화가 허산옥 삶 다룬 뮤지컬 영화 크랭크인

전주의 마지막 권번 기생이자 전통요릿집인 '행원'의 주인, 여류 화가로 격동의 삶을 살다간 남전 허산옥(1926~1993)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된다.

권번(券番)은 일제 강점기 기생들의 조합을 이트던 말로,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고 기생이 요정에 나가는 것을 감독했다. 남전은 16살 때에 기생이 됐다가 한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으나 기생이란 이유로 버림받고 나서 예술에 눈을 떠 국전 화가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동양화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전북 예술계의 후원자이자 대변자로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어게인'을 타이틀로 한 이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과 풍성한

먹거리 등 전주의 정체성이 담긴 한국형 뮤지컬 음악 영화로 16일부터 한 달간 촬영에 들어갔다. 영화는 한정식의 원조이자 허산옥의 삶이 담긴 공간인 '행원'과 전주 8경을 무대로 음식과 노래가 한데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힐링 뮤지컬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 제작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18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받은 지원금 4억75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영화는 촬영과 편집 등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완성될 예정이며, 같은해 5월에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어게인'의 여주인공인 연주 역은 인디 영화

계의 퀸으로 떠오른 셋별 김예은이, 허산옥 역에는 아이돌 가수 출신 김소리와 영화 '신과 함께'에서 어머니역을 맡은 배우 예수정이 캐스팅됐다.

영화와 함께 허산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모바일 영상인 웹콘텐츠인 '권번 기생 허산옥 소재 뮤지컬 웹 무비(20분 5부작)'도 동시에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 프로젝트에는 감독 조창열이 연출을 맡고, 영화 제작사인 (주)하너바람이 개발에 참여한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인 영화 제작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활용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전주발 문화콘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는 열의와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 지원하세요'

전주박물관, 자원봉사자 27명 모집

국립전주박물관은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문화, 역사에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와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상설전시실 전시해설과 어린이 박물관 오리엔테이션 분야로 총 27명을 선발

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주 1회 이상 박물관에서 근무(오전 10시~오후 4시 30분)하게 된다.

자원봉사는 수당이나 보수가 없이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사자들의 전문성과 봉사 활동의 사기를 높이고자 전문문화 및 역사와 관련된 심화 교육, 유적지 답사, 국립전주박물관 발간자료 및 중식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수 활동자에 한해 박물관장의 표창이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내 자료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박물관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전시해설 및 오리엔테이션 시연을 거쳐 1차 합격자는 오는 31일, 2차 합격자는 내년 1월 10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신규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70% 이상을 이수해야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송효철 기자

'일상에서 벗어나 남미음악과 춤에 흠뻑'

부안군,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안데스의 바람' 무료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작은 음악회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안데스의 바람'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남미음악 전문공연단 '가우사이'의 안데스 전통음악 공연과 에콰도르 전통예술단의 전통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안데스 전통음악은 그 유려하고 신비로운 특성으로 인해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라는 별칭이 있으며 이날 남미 안데스 전역에 걸친 민속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가우사이 공연단은 아시아 최초 남미음악 전문공연단으로 에콰도르 오파발로라는 지역의 원주민 청년들로 구성된 전국의 문예회관, 비엔날레, 축제 공연,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드라마, 영화, 라디오에서도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 영화 '엘콘도르빠사', 드라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KBS이웃집찰스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이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작은음악회로 그동안 작은음악회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공연 프로그램이라는 호평을 받아 왔다. 또 매월 마지막 주에 펼쳐졌던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문화지평을 확대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에 오면 일상에서 벗어나 마치 남미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듯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남미음악과 춤에 흠뻑 빠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전체 연령 입장 가능하며 무료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나누미근농장학금 100만원 기탁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유수영)는 최근 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부안군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금산시의 지휘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창단연주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10회 이상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를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초청연주회, 10월 폴란드 피아노 쇼팽 국제 콩쿨 수상자 초청연주회, 2017년 7월 김수로, 강성진 세계뮤지컬페스티벌 등 전라북도 최고의 오케스트라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여 올해까지 4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부안의 인재육성에 동참하고 있다.

유수영 대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부안군의 미래 아이들이 자



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드리며, 후원에 주신분들의 정성이 모여 부안의 미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